

5월 찬란한 백제 문화 펼쳐진다

‘익산서동축제’ 5월 3~6일 개최... 가족 콘텐츠·도심 행차 퍼레이드 강화

찬란한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익산서동축제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익산서동축제가 황금연휴인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서동축제는 익산이 간직한 백제 문화를 토대로 서동·선화의 사랑과 백제 부흥이라는 무왕의 꿈을 이야기하는 지역 대표 축제다.

시는 서동축제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표 우수 축제로 선정된 만큼 올해도 준비에 박차를 가해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다채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난해 시민의 결집력이 돋보였던 도심 행차 퍼레이드를 더욱 세심하게 준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축제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컨설팅 등을 진행해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다른 지역의 대표 축제를 답사해 우수 사례를 살피었다.

다음달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익산서동축제 추진위원회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회의 결과를 토



익산서동축제 도심 행차 퍼레이드 사진

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동축제는 백제왕도 익산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역사 인물

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졌다”며 “축제에 방문하는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전주덕진공원-건지산 관광 발전 전략 제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덕진공원~건지산 일대의 방문객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JRI 정책브리프 제6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JRI 정책브리프 제6호’는 ‘통신 빅데이터 및 방문객 실태조사를 활용한 덕진공원-건지산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과 시사점’을 주제로 덕진공원과 전주동물원, 어린이청소년체험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의 통신사 빅데이터(2024년 10월~2025년 9월)를 분석하고, 지난해 10월 전주페스타 기간 중 덕진공원-건지산 일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덕진공원(204만여 명 방문, 전주시 외 거주자 47.1%)과 동물원(117만여 명 방문, 전주시 외 거주자 43.2%)이 덕진공원~건지산 일원의 주요 관광지임을 확인했으며, 덕진공원 인근 전체 방문객의 29.0%가 20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해 덕진공원-건지산 일원을 찾는 이유에 대해 △휴식 및 산책 △관광명소·공연 관람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확인, 자가용을 이용한 방문객(전주시민 65.7%, 전주시 외 거주자 81.2%)의 비율이 높아 주차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덕진공원-건

지산 일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적 지속성’을 주요 키워드로 도출했으며, 이를 위해 대형 관광 개발보다는 △치유의 숲 △조경단과 연계한 왕실 테마의 정원 등을 전주시의 우선 추진과제로 도출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관광객과 전주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 개발 △교통·이동 및 관광편의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브리프는 덕진공원~건지산 일원의 방문객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덕진공원~건지산 일원의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완주군, 문화예술 기관·단체 신년간담회 개최

완주군이 23일,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신년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완주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완주문화재단, 문화도시 지원센터, 완주예총, 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완주군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지난해 도스드 양성과정 및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공간 개선 및 확충,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문화로 발전하는 문화경제 도시 정책 확립’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완주문화 네트워크 조성 △생활문화 발전모델 창출 △역사와 문화예술이 융합된 콘텐츠 구축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확대 등 더욱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완주군 문화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0회 정기연주회

요한스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 기념 신년음악회 오늘 개최

군산시립교향악단이 2025년 을사년을 축하하는 화려한 연주회를 선보인다. 예술의 전당은 23일 오후 7시 30분 군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요한스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작인 오페레타 ‘박쥐’의 음악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박쥐’는 비엔나 상류사회의 풍자와 복잡한 인간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비람둥이 남작 아이젠슈타인과 그의 아내 로잘린데, 복수인 한복판에 놓인 팔개 박사 등 다채로운 인물들이 벌이는 소동을 다룬 오페레타다.

첫 무대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의 ‘박쥐 서곡’으로 시작되며, 이어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온 성악가들인 안감성, 안희도, 정별남, 이세희가 화음을 맞춘다.

이들은 ‘이중창 나와 함께 파티에 가자’, ‘친애하는 후작님’, ‘저 우아한 자태’, ‘차르다시’ 등 요한스트라우스의 명곡들을 선보이며 풍성한 음악적 감흥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객들은 이명근 지휘자의 섬세한 해설과 군산시립교향악단의 감각적인 왈츠 음악, 그리고 깊이 있는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간을 만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이명근 지휘자는 “이번 신년음악회를 통해 요한 스트라우스의 아



름다운 음악이 주는 새해의 희망과 기쁨이 시민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연 관람은 초등학교 이상 가능하며, 전좌석 유료(5,000원)로 진행된다. 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063-454-5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온 가족 함께 즐기는 설맞이 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전당, 28·30일 전통음식·공예·놀이 등 체험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8일과 30일 양일간 설맞이 전통문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주공예품 전시관과 우리놀이 마루달, 전주천년한지관 등 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서 이뤄진다.

먼저, 전당에서는 △전통음식(쌀강정 만들기) △한지공예(근하신년 한지 캘린더 액자등 만들기) △수공예(한복 입은 모투인형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입동대길 상설공예 프로모션과 함께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우리놀이 마루달에서는 마루달 친구들과 솜바꼭질을 주제로 심이진 캐릭터를 찾는 이벤트와 함께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공기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사방치기 등 우리놀이

를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한지로 만나는 설을 주제로 한지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꾸지 △전통한지 제초 △관화 그리기 △전통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방문객에게는 전주천년한지관에서 만든 2025년 한지달력과 소식지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설맞이 전통문화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당 누리집(kac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새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함께 문화적 풍요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